

2020창원조각비엔날레

시민 강좌 <조각의 모든 것>

정준모 전시기획자 : 비엔날레 핫이슈 조각가
2020. 8. 22 (10회차)

현대조각의 동향

현대미술사에서 조각은 회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이런 이유로 현대조각에 관한 연구나 논의는 늘 부진했다. 또한 현대조각의 진정한 특징을 간파해 설명하는 경우는 더욱 없었다. 그런 점에서 결국 1977년 컬럼비아대학 미술사 교수인 로잘린 크라우스(Rosalind E. Krauss, 1941~)의 <현대조각의 동향>(Passages in Modern Sculpture.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77)은 획기적인 저서였다. 하지만 크라우스의 관점도 미술의 영원한 논쟁의 주제인 일루전(Illusion)과 실재(Reality)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지를 펴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현대미술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동시에 미술이 미술 자체를, 작품이 작품 자체를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원히 풀 수 없는 난제이기도 하다. 이는 마치 마그리트가 이미 갈파했듯 ‘담배 파이프를 그려놓고 그 그림 아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써놓았던 것처럼 그림 속에 그려진 대상은 환영에 불과하고 실재는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오늘날의 사이버 상의 이미지나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과 비슷하지만 진부하고 기술적으로 낙후된 초기 가상현실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현대미술에서 작가들은 더 이상 재현을 통한 가상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드러내고자 한다. 그리고 작가 자체가 주체가 아닌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까지 포함하는 공동의 작업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현대미술 작품에서 시간은 관람객이 작품을 경험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모더니즘 비평이 주로 작품 특징을 중심으로 논평했다면, 오늘날 작품 감상은 작품을 지각하는 방식, 즉 주체와 작품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의 전환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주체와 세계의 관계를 다시 설정한 새로운 세계관으로서의 현상학이 등장하고 부터이다. 현상학에서는 칸트나 데카르트식의 근대 관념 철학의 전제가 되었던 ‘선형적’(a priori) 주체가 부정되며 주체와 대상(또는 관념과 물질)이 상호 혼입되는 과정에서의 체험을 중시한다. 신체를 통해 사유하는 살아 있는 시간 속에서 세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유동적이며 불투명하지만 그것이 바로 세계의 실체라고 믿는다.

시간을 초월한 작품 자체의 의미는 작품과 관람객이 만나는 시간으로 눈의 방향을 돌리기는 했어도 그 관람객은 어디까지나 예술이라는 문맥 안에서 독립된 초역사적이고 초사회적인 존재이다. 독일의 계몽주의자 고트홀트 에프라임 레싱(Gotthold Ephraim Lessing, 1729~81)은 조각은 “실체들을 공간 속에 배열하는 예술”이라 주장했다. 시각예술은 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적 특성은 시와 시인과 같이 시간을 매체로 하는 예술형식들의 본질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회화는 단지 공간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기호 또는 모방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그리는 일은 완전히 단념해야 한다. 그렇다면 잇달아 일어나는 행위는 잇달아 일어나기 때문에 회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회화는 선행하는 것과 후속하는 것이 가장 명백하게 되는 바의, 가장 함축적인 순간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시간을 *καιρός*(카이로스)와 *χρόνος*(크로노스)로 구분했다. 카이로스(Kairos)는 지금, 순간이라는 의미의 ‘시각’을 뜻하며, 후자인 크로노스(Kronos)는 ‘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카이로스(순간의 개념)는 시각예술과 언어예술을 분류하는 근거가 되었다. 아무튼, 레싱은 ‘시는 회화처럼’의 전통, 자매로서의 시화의 전통이 결정적으로 소멸되었으며, 이후 예술은 ‘공간예술’과 ‘시간예술’로 분리되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근대예술은 자기 자신의 권역 속에 시간을 되찾으려는 동기에 의해 특징이 지워진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미래파는 그 가장 보기 쉬운 예에 불과하다.

1930년대까지만 해도 시간예술과 공간예술을 대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실제 현대 조각의 역사는 현상학과 구조 언어학이라는 두 가지 사상체계의 전개와 일치한다. 동시성은 항상 연속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현대조각의 놀라운 측면 중 하나는, 조각이란 특히 정지와 움직임, 즉 포착된 시간과 흐르는 시간 사이의 결합점 위에 있는 매체라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시간과 시각 사이의 긴장으로부터 조각의 엄청난 표현력이 나온다.

조각은 본성이 정태적이므로 움직임을 통해 전개되는 시간을 재현하기에는 가장 부적합한 매체이다. 하지만 미래주의 미술가 움베르토 보치오니(Umberto Boccioni, 1882~1916)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과제는 사물에 내재된 두 가지 존재방식을 융합하는 것이었다. 구조적이고 물질적인 본질인 “절대적 움직임”과 두 번째 존재 방식은 사물의 “상대적 움직임”을 포착하고자 했다. 이것은 실제 공기 속에서의 사물의 우연한 존재 양태를 의미한다.

보치오니의 <공간 속에서의 병의 전개>(1913)는 조각의 문제를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의 문제와 동일시한 작품이다. 병을 ‘안다는 것’은 부분적이고 본질적으로 불분명한 시각 모두를 통합하는, 일종의 종합적 시각이 수행하는 기능이어야 한다. 시각의 총체성 사이의 갈등, 대상과 관람자의 ‘실제’ 거리라는 것을 재정의 하는 것이다.

보치오니는 개념 체계가 물질적 경험 체계를 초월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작품을 지각적 체계인 동시에 실제 공간의 점유물로서 제시하여 서로 긴밀하게 짜이게 만든다. 피카소의 부조는 작품 표면 너머의 종합의 계기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념적 핵심이 없다. 현대 미술의 전략적 수단이란 “예술작품”이란 용어에서 작품의 본질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질문을 제기하는 사변적인 행위야 말로 예술품 제작행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며 합당한 형식이라는 방향으로 사고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뒤샹을 사로잡았던 것은 레이몽 루셀(Raymond Roussel, 1877~1933)의 연극 <아프리카의 인상>이었다. 그의 작품은 불투명성 자체였다. 뒤샹은 루셀이 보여주는 기상천외한 상상의 기계들, 동음이의어로 된 말장난의 향연에 완전히 매혹되었다. 이후 그는 회화를 버린다. 뛰어난 손재주로 망막에 감흥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회화에 신물이 난 그는 이때부터 다양한 오브제와 매체, 소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 그중 유리는 뒤샹이 특히 좋아했던 것 중 하나다.

루셀의 책들은 예술 제작 과정의 극단적 자동화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기계화는 상호 관련된 2개의 결과를 가져온다. 작품에서 관습적인 의미의 원천이 박탈된다는 것은 현대미술을 현대미술답게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예술작품들에서 의미는 그 작품을 창조한 사람이 지닌 관념과 감정의 짜임 속에 함축되어 있으며, 제작행위를 통해 작품에 전이되고, 그림으로써 그것을 보는 사람 혹은 읽는 사람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작품은 투명한 유리창과 같아서, 그것으로 관람자와 작가의 심리적 공간들이 서로를 향해 열린다. 예술작업의 기계화는 이와 같은 작품에 대한 관람자의 관습적인 접근의 권리에 장애물이 되고, 그 결과물의 진기함에만 모든 관심이 쏠리게 된다. “결과물의 진기함”이 가리키는 것은 개인적인 특이함이나 기벽이 아니라 좀 더 절대적인 미학적 질문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문제의 작품은 일반적인 대답이 되면서도 특수한 예가 된다.

아무튼 현대 조각의 흐름에 대한 논지 또한 일루전과 실재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일루전의 개념은 단순 시각적인 일루전 뿐만이 아닌 관념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시간은 관람자가 작품을 경험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모더니즘 비평이 주로 작품 자체의 특징을 중심으로 맴돌고 있었다면 크라우스는 작품을 지각하는 방식, 즉 주체와 작품의 관계로 논의의 초점을 옮긴다.

이 전환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주체와 세계의 관계를 다시 설정한 새로운 세계관으로서의 현상학이다. 현상학에서는 무엇보다도 칸트나 데카르트식의 근대 관념 철학의 전제가 되었던 '선험적'(a priori) 주체가 부정되고 주체와 대상, 또는 관념과 물질이 상호 혼입되는 과정에서의 체험이 중시된다. 신체를 통하여 사유하는 살아 있는 시간 속에서 세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유동적이며 불투명하지만 그것이 바로 세계의 실체이다. 시간을 초월한 작품 자체의 의미에서 작품과 관람자가 만나는 시간으로 논의 방향을 돌리기는 했어도, 그 관람자는 어디까지나 예술이라는 문맥 안에 고립된 초역사적이고 초사회적인 존재이다.